
2016년 하동군의회 의원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연수 요약 >

- ▶ 방 문 지 : 일본
- ▶ 방문기간 : 2016. 9. 24. ~ 9. 30 (6박7일)
- ▶ 연수단구성 : 하동군의회 의장 외 14명
- ▶ 연수목적
 - 외국의 환경·사회복지시설 등을 비교·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
 - 의원들의 견문확대를 통한 국제적 마인드 제고



하 동 군 의 회

목 차

I. 연수개요	2
II. 주요일정	3
III. 연수국 주요개요	4
IV. 방문시설 및 전문내용	18
1. 동경 아메요코 재래시장	18
2. 동경 신도청 전망대	20
3. 동경 국립 장애인 재활치료센터	23
4. 동경도 제3건설 방수로 센터	27
5. 오오타구 쓰레기 소각장	30
6. 삿포로 돔 시설	34
7. 오타루 운하 및 매립지 활용지역	37
8. 미치노에키 휴게소 및 농수산물 직거래장	39
V. 결 어	41
1. 총평 및 시사점	41
2. 하동에 접목하고픈 기타 사례	42

2016년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I

연수개요

해외의 초현대식 복지·환경시설과 유서깊은 문화·체육시설의 보존, 활용 실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과 비교·분석하여 군정현안 사업 및 의정활동에 접목하기 위함.

연수국 : 일 본

연수목적

- 방재분야 :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예방을 위한 방재센터 방문
- 도시·환경분야 : 도시재생 및 쓰레기 소각장 등 방문
- 체육·복지분야 : 돔 시설 및 장애인복지센터 등 견학
- 기타분야 : 재래시장 등 농수산물 유통시설 견학

연수기간 : 2016. 9. 24(토) ~ 9. 30(금) [6박7일]

연수단 구성 : 군의원 9명, 공무원 6명

직	성명	직	성명
의장	손영길	의원	강상례
부 의 장	정의근	의회사무과장	강영석
의회운영위원장	김종환	의회운영전문위원	왕광득
기획행정위원장	강희순	의사직원	정진희
산업건설위원장	하인호	의사직원	박수환
의원	김선규	건설교통과장	김한기
의원	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 직원	박다영
의원	김봉학	참가인원	15명

II

주요일정

일자별	시 간	내 용	비 고
1일차 (9.24, 토)	07:00 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발(의회 → 김해공항) 출발(김해공항 → 나리타공항) 	군청버스 에어부산
2일차 (9.25, 일)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 기관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경 아메요코 재래시장 - 동경 신도청 전망대 	도쿄
3일차 (9.26, 월)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 기관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경 국립 재활치료센터 방문 - 동경도 제3건설 방수로 센터 방문 	도쿄
4일차 (9.27, 화)	전일 1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 기관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오타구 쓰레기 소각장 방문 도쿄 출발 => 삿포로 향발 	도쿄 삿포로
5일차 (9.28, 수)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 기관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삿포로돔 시설 견학 	삿포로
6일차 (9.29, 목)	전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 기관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타루 운하 및 매립지 활용지역 방문 - 미치노에키 휴게소 및 농수산물 직거래장 	삿포로
7일차 (9.30, 금)	12:55 15:30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삿포로공항 출발 김해공항 도착 출발(김해공항 → 하동) 	에어부산 군청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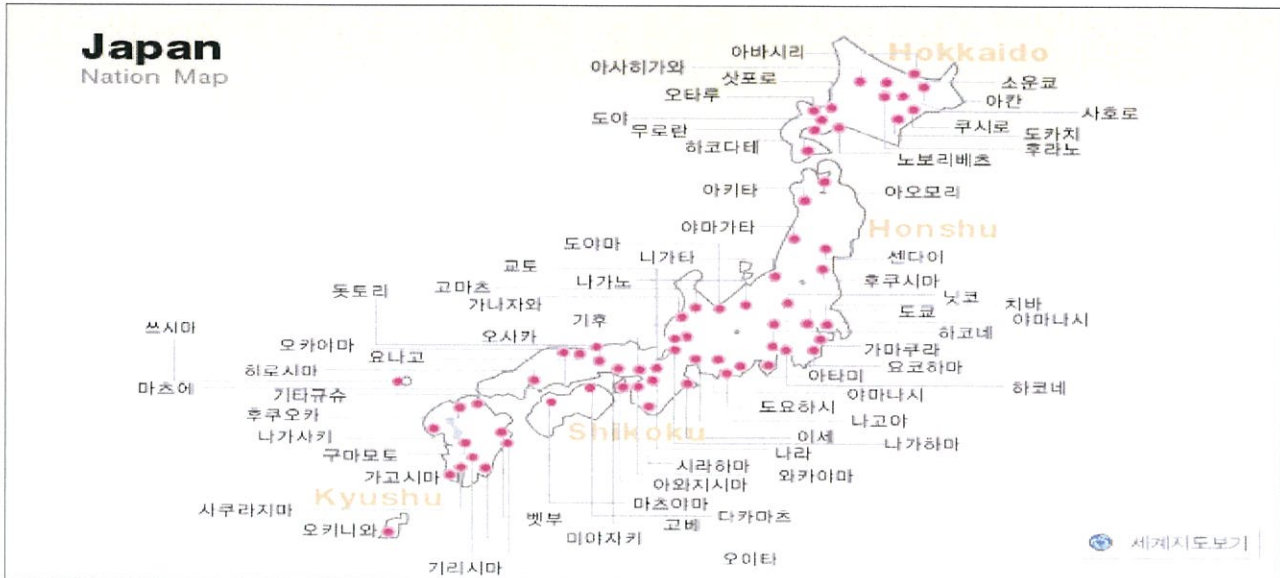


연수국 주요개요



국가개요

가. 주요도시



나. 일반사항

국가명	• 일본(日本)/Japan
위 치	• 홋카이도[北海道], 혼슈[本州], 시코쿠[四國], 규슈[九州] 4개 큰 섬을 중심으로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이어지는 일본열도를 차지한 섬나라
면 적	• 377,950km ² (한반도 면적의 1.7배)
수 도	• 도쿄(東京)/TOKYO
인 구	• 1억 2,687만 명(2015.9.1. 기준)
인 종	• 대화족(大和族: 야마토족) 99%이상, 기타 재일교포, 아이누족 등 1% 미만
기 후	• 4계절이 분명하며, 대체로 해양성 온대 기후 • 남북 길이가 3,300km로 지역별 기후 차이가 심함
언 어	• 일본어
종 교	• 신도 52.3%, 불교 42.2%, 기독교 1.1%, 기타 4.3%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 천황(明仁:아키히토)
수 상	• 아베 신조(安倍晋三) 2012.12.26. 취임

일본어로는 '니혼' 또는 '닛폰'이라 한다. 공식 국호는 닛폰코쿠[日本國]북쪽으로 홋카이도 북쪽의 소야[宗谷] 해협 및 북동쪽의 네무로[根室] 해협을 끼고 러시아의 사할린 및 쿠릴 열도 남단의 구나시리섬과 대하며, 남쪽으로는 난세이[南西] 제도가 타이완[臺灣] 근해까지 이어진다. 서쪽으로는 동해(東海)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의 연해주(沿海州:Primorskij Kraj) 및 한국과 대하는데, 대한해협 중간에 있는 쓰시마섬[對馬島]은 부산에서 50km 거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 등이 산재하면서 태평양에 면한다. 행정구역은 43개현, 1개특별도(都), 1개도(道), 2개부(府)로 되어 있다.

다. 경제사항

GDP 총액	• 4조 1,232억 달러('15년)
인당 GDP	• 32,485달러('15년)
경제성장률	• 0.5% ('15년)
완전 실업율	• 3.4%('15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 0.8%('15년)
산업구조	• 1차 산업 1.2%, 2차 산업 24.9%, 3차 산업 74%
외환보유고	• 1조 2,481억 달러('15년)
화폐단위	• Japan Yen (¥)
주요수출품	• ('15) 자동차, 반도체 등 전자부품, 철강, 자동차 부분품, 원동기
주요수입품	• ('15) 원유 및 조유, 액화천연가스, 의류·동 부분품,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출액	• 6,252억 달러('15년 기준)
수입액	• 6,488억 달러('15년 기준)
교역규모 (일본의 대한국 무역, '15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44,037백만 달러(전년비 -14.6%) • 수입: 26,816백만 달러(전년비 -19.7%) • 무역수지: 17,221백만 달러(전년비 -5.2%)

라. 물가정보

구분	항목	가격(JPY)
식품류	쌀(니가타, 코시히카리) 5kg	2,104
	계란 10개	245
	쇠고기 등심(국산 1kg)	8,820
	돼지고기 등심 (국산 1kg)	2,700
	우유 1000ml(우유팩)	224
	생수 2L	94
	맥주 (350ml, 6팩)	1,124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460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370
	김치찌개 1인분	1,300
의료비	의료보험료 (연봉 600만엔 수준, 가장 40살, 전업주부, 아이 2명, 4인가족, 국민건강보험 1년치)	741,264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7,0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2,10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아리온, 2000cc 기본사양)	2,249,345
	무연 휘발유 1L	115
	자동차보험료 의무 (자기배상책임, 자가승용차, 24개월분)	27,84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556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170
	시내버스 기본요금	210
	택시 기본요금	73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민간운영, 3.3m ² , 도쿄도 23구 내)	8,632
임금/노무	대졸 초임 (월 평균 초임)	204,500
	고졸 초임 (월 평균 초임)	163,4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출산휴가일수	14주
	연간 국경일수 (토·일요일 제외)	16일
	주5일 근무 여부	주5일

일본의 역사

가. 선사시대

약 1만 년 전,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신석기 시대를 지나 기원전 3세기경에는 한반도에서 벼농사가 전래되어 야요이 시대가 시작되었다. 야요이 시대에는 금속을 다룰 수 있게 되어 농사 등이 급속히 발전하였고, 사유 재산과 신분·계급 제도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나. 고대

4세기에는 야마토 조정이 지배하는 국가가 성립하여 통일 국가가 생겨났다. 이 시기부터 세습 왕이 군림하기 시작했으며, 백제를 통해 4세기 말에는 한자와 유교가, 6세기에는 불교가 일본에 전래되었다.

‘나라’에 도읍을 두고 있던 시기를 나라 시대라 하며 이 즈음에 일본 최초의 역사서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만들어졌다. 794년에는 수도를 교토로 옮겼고, 이때부터 가마쿠라 막부가 개설되기까지의 기간을 헤이안 시대라고 한다.

다. 중세

1192년에는 쇼군(장군)에 의한 세습 군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가 열렸으나, 두 차례에 걸친 원나라의 침공과 함께 쇠퇴하고 무너졌다. 이후 서로 다른 왕을 내세운 남북조의 대립이 이어졌으나, 북조의 승리로 무로마치 막부 시대가 시작되었다.

라. 근세

무로마치 시대 말에는 지방 영주인 다이묘들이 독립해, 서로 항쟁하는 전국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전국 시대 말기 오다 노부나가가 중앙으로 진출하고, 그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0년에 전국을 통일하였다. 도요토미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략했으나 전쟁에 실패한 채 사망하였다.

이후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현재의 도쿄)에 막부를 설치하였고, 이때부터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바탕으로 약 260년 동안 에도 시대가 이어졌다.

마. 근대

1867년 개척파의 주도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 막부가 무너지자, 개척파는 새로운 정부를 세워 정부 주도하에 산업 근대화를 추진해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이는 한편, 왕을 신격화했다. 또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일으켜 타이완·한국·사할린을 식민지로 삼고, 제국주의 국가로 변신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 때에는 연합국 측에 가담해 큰 이득을 얻어 세계 열강과 어깨를 겨루는 나라가 되었으나, 1920년대에 세계 불황의 물결에 휩쓸려 경제 위기에 빠졌다.

일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륙을 침략하고, 중국과 충돌하여 중일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독일·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맺어, '대동아공영권(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아시아 대륙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 일본이 내세운 슬로건)'이라는 명목으로 동부아시아를 지배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영국 등과 대립하다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미국의 원자 폭탄 투하와 소련의 참전을 계기로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게 항복하였다.

바. 현대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나, 한국의 6·25 전쟁으로 경제 부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1951년 연합국과의 강화 조약과 미일 안보 조약에 의해 주권을 회복하여 자유 진영에 가담하였으며, 자민당이 집권한 38년 동안 급속히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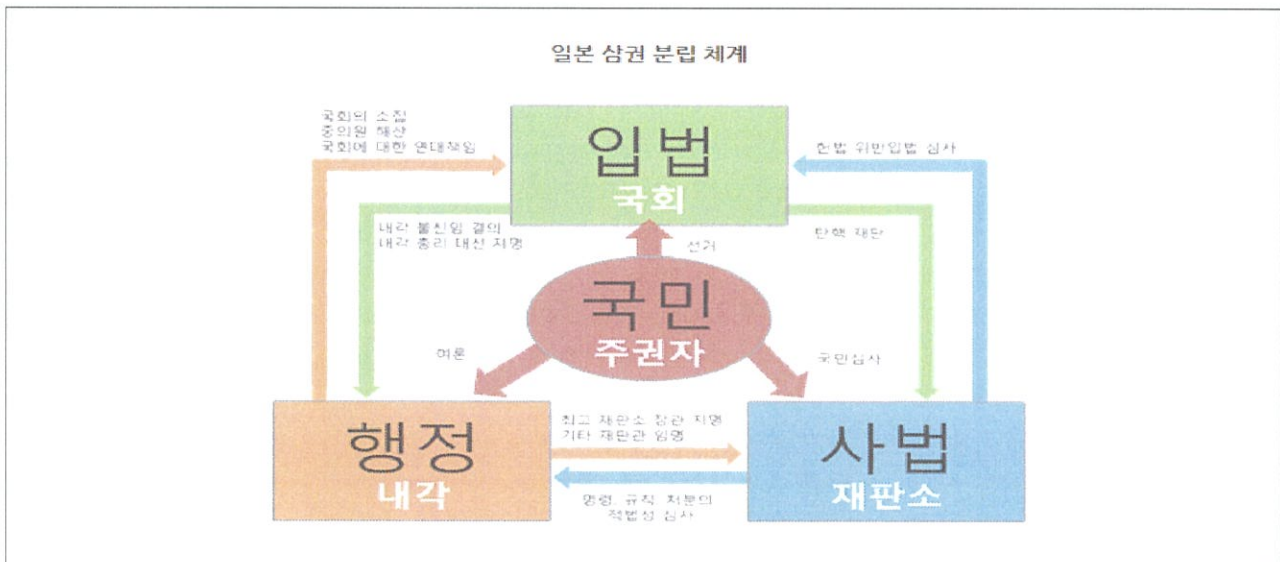
정치 · 사회동향

가. 일본의 천황제

일본의 구헌법에서 '통치권의 총람자(總攬者)'로 되어 있던 왕은 신헌법에서는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않는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되어,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형식적인 국사(國事)행위를 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왕과 신도(神道)의 종교적인 연관성도 부정되었다.

나. 정치체제

일본은 입법권이 국회(헌법41조)에, 행정권은 내각(65조)에, 사법권은 재판소(76조1항)에 속해 있는 삼권분립 체제이다. 이 중에서도 영국과 유사한 의원내각제를 취하여 삼권의 견제 및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에서 주권인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기관인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으로 규정되어 국정의 핵심을 이룬다.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채용했기 때문에 국회는 첫째로 총리 지명권, 중의원(衆議院:하원)의 내각 신임 또는 불신임의 의결권 등을 가진다. 둘째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 모든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안의 제출권은 내각(총리)·의원 양자가 가지나 예산안 제출권은 내각만이 가진다. 또 조약의 승인도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 셋째로 미국적인 삼권분립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회는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 재판관의

탄핵재판권을 가지나, 반대로 내각의 중의원 해산권, 최고재판소의 법령 위헌(違憲)심사권에 의해 견제되고 있다.

국회는 양원제로 중의원·참의원(參議院)으로 구성되는데, 중의원은 예산안 심의·총리지명·조약비준 등에 관해 참의원보다 우월(優越)한 권한을 가지고, 또 일반 법안에 관해서도 양원의 의결이 다를 때는 중의원이 2/3 이상의 찬성으로 참의원의 의결을 뒤엎을 수 있다. 중의원은 임기 4년으로 의원수는 480명이며, 참의원은 임기 6년, 의원수 247명으로 3년마다 지역구와 전국구의 1/2씩을 선출하고 임기 중 해산은 없다.

다. 정당체제

일본의 정당제는 55년 체제 아래 자민당이 여당으로 장기 집권한 것이 특징이다. 55년 체제는 전형적인 일당우위적 상황이었고, 자민당의 일당 지배가 끝난 1993년 이후, 일본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정권을 잡은 경험이라는 점에서 온건한 다당제로 부를 수 있다. 또한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병한 2003년 이후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2대 정당체로 부를 수 있다(자민당이 중의원 제1당, 민주당이 참의원 제1당을 차지한 상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되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일본의 정당제는, 1993년의 선거 제도 개혁을 계기로, 자민당일당 지배로부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서서히 2대 정당체로 이행하고 있다는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 그러나 작금의 여론으로 중의원 의원 선거에 채용된 소선거구 제도에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제도 구조상 큰 정당에 유리하고, 문제점으로 득표율과 의석 획득률이 동떨어지게 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겨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4할의 득표로 8할의 의석을 획득했다. 총무성에 따르면 낙선 한 후보에 투입된 "사표(死票)"는 약 53%에 달했다고 한다. 민의가 강하게 반영되고, 그리고 대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소선거구 제도 때문에 2009년 중의원 선거와 최근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실현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사표도 많기 때문에 선거 제도 개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라. 한-일관계

한일 양국은 독도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과거사 문제 등 외교적 차원에서는 종종 미묘한 대립 관계를 보이는 반면, 양국의 경제, 문화 등 민간 부문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교역 측면에서는 한일 교역 규모 자체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 수출이 늘어나면서 부품·소재·설비 대일 의존도도 덩달아 높아짐에 따라 대일 무역 역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월드컵 공동 개최, 한류 붐 등으로 양국간 우호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다. 한일 양국은 양국 국교 정상화 이래 40년이 되는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관광, 문화, 이벤트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 프로젝트를 실시해 한일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교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이치 만국박람회가 개최되는 기간 중에 비자를 일시 면제하고 2006년 3월 1일 기준, 한국인 관광객의 단기 체제 비자 면제 실시를 발표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2005년 들어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등 역사 문제가 돌출하고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이어지는 등 우호 협력 분위기가 상당 부분 악화되었다.

그러나 2007년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 후쿠다 총리가 집권하면서 양국간 긴장이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2월 대통령 취임식에 후쿠다 총리가 참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답방으로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양국 정상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함께 기여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보다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확대하는 ‘한-일간 신시대를 열어나간다’는데 합의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 중이다. 우익으로 평가받는 아소 다로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된 이후에도 당초의 예상을 깨고 긴밀 관계를 유지하였다.

2009년 9월 전후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룩하며 발족된 하토야마 정권은 우애(友愛)사상을 정치이념으로 삼고 아시아를 중시 여기는 외교를 펼쳤다. 특히 취임 이후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하면서 과거사 청산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등 하토야마 총리는 한-일 외교에 큰 무게를 두었다.

2010년 8월 일본 정부는 한일병합조약발효 100년을 맞이함에 있어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 및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의지를 주축으로 하는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를 발표했다. 본 담화는 8월 15일 광복절 이전에 발표함으로써 한국측에 향후 긍정적인 대응을 기대하는 의도도 담겨있다. 간 나오토 수상은 담화 발표 이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담화의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담화의 주요 내용은 ‘한국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시된 식민지 지배에 의해 나라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게 했다’ 라는 인식을 표명했으며 이에 더불어 ‘역사의 진실을 직시할 용기와 그것을 받아들일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는 솔직한 자세를 가지고 싶다’ 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2차 대전 종전 50년 기념해서 1995년 발표되었던 무라야마 담화의 표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식민지 지배가 야기시킨 큰 손해와 고통에 대해서 통감하며 마음에서의 반성의 의사를 표명한다’ 라고 마무리 하고 있다.

2012년 5월 13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양국 정부 지도자가 중국 북경을 방문했을 때 정상회담을 실시하여 동아시아 정세, 김정은 체제 이후의 북한 무력도발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논란이 될만한 사항인 독도, 종군위안부 등의 건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고 서로간에 신뢰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 행동에 반발 및 항의조치로 이날 무토 마사토시 주한 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다(그 후 같은 달 22일 귀임). 또한, 같은 달 17일, 노다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 상륙 및 한일 관계에 대한 다양한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한국 측에 신중한 대응을 해달라는 취지의 친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 친서는 수취가 거부되었다.

그 후, 한국과 일본 모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2013년 2월 25일에는 한국 서울에서 아소 부총리가 박대통령을 예방하고 대통령 취임 축하의 뜻을 전하는 등 회담했다. 한중일 FTA 협상 재개에 맞추어 한중일 3개국 정상 회담도 5월 하순에 서울에서 할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었지만, 중국이 참여를 기피, 연기 될 전망이다. 또한 아베 내각의 현역 장관의 잇따른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한일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후 7월 1일, ASEAN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외무 장관이 첫 대면 외무 장관 회담을 가졌다. 한일 외무 장관 회담은 제 2차 아베 신조내각 및 박근혜 두 정권이 출범 한 이후 약 9개월만이다. 외무장관 회담후 한일 정상회담 개최 기운이 고조되는 듯 했으나 2013년 12월 아베 수상 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양국 관계가 다시 냉각, 결국 2014년 3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2014년 8월 9일 미얀마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외무장관이 회담. 양국간 공식 외교장관 회담은 2013년 9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개최된 것이다. 양국 외무장관은 장관 레벨을 포함, 정부간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윤장관은 "역사 문제에서 일본이 진지한 태도를 보이면 양국 사이에 복잡하게 얽힌 실을 조금씩 풀어나갈 것"이라며 정상회담의 실현을 위해 일본의 행동을 요구했다. 이후 양국간 외상회담(2015년 3월, 6월) 및 한중일 FTA 협상 회의 등 양국간 정부 차원의 인사 왕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5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6월 22일 서울과 도쿄에서 열린 행사에 한일 양국 정상이 교차 참석했다. 위안부 문제 등의 쟁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냉각된 양국 관계 해법을 찾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은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 11월 2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2년 5월 이후 3년 반 만이다. 금번 정상회담은 11월 1일 중국의 리커창 총리를 포함한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뤄진 후 진행되었다. 삼국 정상은 정상회담 연 1회 개최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으

며,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 등에 대한 의지를 확인,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로 향하자"라는 표현을 담은 공동 선언을 정리해 발표했다.

2016년 3월 31일 방미 중이던 아베 신조 총리는 워싱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기 위해 쌍방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안전 보장분야를 포함한 연계를 높이고 양국 관계가 전진하도록 정상 간에 지속 대화해 나가야 인식에서 일치를 보였다. 한일 양국간 정상 회담은 2015년 11월 서울에서 이후 처음이었다.

■ 일본의 문화 및 관습

가. 도리이 · 고마누이

도리이(鳥居, とりい)는 신사의 경계 영역을 표시하는 문이다. 나무나 돌, 구리나 철 등으로 만들어진다. 가나가와현 아시노코의 하코네신사나 히로시마현 세토나이카이의 이쓰쿠시마신사와 같이 수중에 도리이를 세운 곳도 있다. 도리이의 기원에 관해 한국의 솟대나 홍살문과의 관련을 지적하는 설도 있다.

고마이누(狛犬, こまいぬ)는 신사나 사찰 본당 정면 앞에 좌우에 놓여져 있는 사자를 닮은 짐승의 상으로서 고려견(高麗犬)이라고 적혀 있기도 한다. 고마이누는 해당 신사나 사찰에 사악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지고 있다.



나. 에마[絵馬]

에마(絵馬, えま)는 신사나 사찰에 기원을 하고 기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례로서 봉납하는 그림이 그려진 현판을 말한다. 원래는 신사나 사찰에 살아 있는 말을 봉납하는 대신 말의 그림이 그려진 현판을 봉납하는 것이었는데 점차 말 외에 신불, 마쓰리의 모습, 선박, 동물, 와카(和歌, わか)의 명인들의 그림 등이 그려지게 되었다. 지금도 수험생의 합격이나 결혼 성취등을 기원하는 에마를 많이 볼 수 있다.



다. 결혼식[結婚式]

결혼식(結婚式)은 관혼상제 중의 하나로 일본인의 통과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거주지의 관공서에 혼인서류를 제출하면 새로운 호적이 만들어지면서 공식적으로 혼인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공식적인 인지를 얻기 위해 비싼 의상이나 성대한 피로연을 동반하는 값비싼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의 전통 결혼식의 형태는 메이지시대(明治時代, めいじじだい : 1868~1912년)에 확립되었다.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결혼식 날짜는 고대 중국이나 일본의 점성술을 기초로 해서 불길한 날을 피해서 잡는다. 전통적인 결혼의식은 식전날에 시작되는데, 신부는 이날 씨족신이나 절에 참배하고 부모님을 비롯해 가까운 사람들과 송별 잔치를 연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의 예식은 주로 신랑 집에서 거행된다.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설 때는 정식으로 흰 옷차림을 하는데, 이때 흰색은 부모와의 출생의 인연이 소멸되는 것을 뜻한다. 신랑 집에 도착하면 신부는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에는 '질투의 뿔'을 억제하거나 감춘다는 뜻으로 면이나 비단으로 된 쓰노카쿠시(角隠し)¹⁾를 쓰고 등장한다. 신랑은 가문(家紋)이 그려진 기모노(着物, きもの)와 하카마(袴, はかま : 주름잡힌 하의)를 입는다.

전통적인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지방 관습과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정해진 세속의 의식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이나 종교와 특별한 관계가 없더라도 종교적인 의식을 받아들일 때가 많았다. 1900년에 황태자(후의 다이쇼 천황)가 신도(神道, しんとう)로 혼례의식을 치르자, 일반에도 신도 결혼식이 유행하게 되어 불교식보다 일반적이 되었다. 최근에는 기독교식의 결혼식도 유행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종교색을 배제한 이른바 인전결혼식도 늘어나고 있다.

주로 집에서 하던 결혼식은 신사나 절로 바뀌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교회, 신사나 기독교 예식을 준비하는 전문 결혼식장 등에서 거행하는 스타일로 변모했다. 결혼식 후에 신부가 친척이나 친구에게 선물을 가지고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사토가에리(里帰り)의 관습도 거의 사라졌다.



라. 장의[葬儀]

일본 장례식의 약 90%는 불교식으로 치러진다. 사망하면 유해는 따뜻한 물로 씻고(湯灌, ゆかん), 가족이 손수 흰 교카타비라(經帷子, きょうかたびら : 수의)나 생전에 좋아했던 옷을 입힌다. 최근에는 유해를 씻고 닦는 일은 의사나 간호사가 하고, 옷을 입히는 것은 장의사가 하는 등 장례식의 전 과정을 장의업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유해는 머리가 북쪽으로 향하게 하고 베개 없이 눕힌 다음 흰 천으로 덮는다. 그리고 스님이 옆에서 경을 읊고 고인에게 가이묘(戒名, かいみょう : 사후의 불교식 이름)를 부여한다. 그 후 유해는 칠이 되지 않은 목재관에 안치된다.

장례기간 동안에는 검은 테두리의 흰 종이에 쓰여진 기추(忌中, きちゅう : 상중, 기중)라는 표시를 대문 또는 현관에 붙이고, 쓰야(通夜, つや : 밤샘) 또는 한쓰야(半通夜, はんつや)를 한다. 가벼운 음식이 준비되고 조문객은 고텐(香典, こうでん : 조의금)을 전한다. 쓰야 다음 날 불교식이나 신도식의 장례식이 집이나 절 또는 장례식장에서 치러진다.

화장 후에 뼈는 납골항아리(骨壺, こつつぼ)에 넣어져 매장되기 전까지 집에 있는 불단에 안치되고, 49일까지 7일마다 납골항아리가 놓여진 제단 옆에서 의식을 올린다. 그 동안에 가족은 조문객에게 고텐의 약 반액에 상당하는 고텐가에시(香典返し)를 보내 사의를 표한다. 그리고 나서 납골항아리는 묘지에 안장된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묘지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마을 주택지에 위치하고 있다.



IV

방문시설 및 견문내용

1. 동경 아메요코 재래시장

가. 방문일시 : 2016. 9. 25(일)

나. 시장개요

- 아메요코 시장은 동경의 우에노에 자리잡고 있다. JR우에노역에서 오카치마치역까지의 철로변을 따라 형성된 동경에서 유일하게 남은 재래식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아메요코 시장은 남대문 시장보다도 규모가 작고 역사 또한 깊지가 않다. "아메요코"는 1945년 6월 정식으로 명칭 등록을 했다한다.

이름의 유래에는 여러가지 설이있지만 예전부터 식료품 관계를 많이 팔았고 그중에서도 아메(사탕)을 파는 가게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이 하나있다.

또 하나의 설은 패전 후 점령군인 아메리카 군대의 옆으로 방출된 상품이 많아 "아메요코"라고 불리워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곳은 일본에서 가격을 흥정할 수 있는 흔치않은 곳이다. 대부분 정가로 판매되는 일본 상점들과는 달리 이곳에선 예전의 남대문 시장과 같이 가격을 흥정해 물건을 사는 재미로 많은 일본인과 외국인들이 모여 든다.

난장판 같이 길거리에는 신발에서부터 골프채, 생선, 건어물, 김, 먹거리, 옷, 약국, 악세사리 등을 파는 장사꾼들은 소리를 지르고 손벽을 치며 손님들을 부른다. 남대문 시장과 분위기가 똑같다.

남대문처럼 '골라 잡아 얼마'라는 판매 수법에서부터 물건을 한 개 더 얹어주는 방법, 특별 세일이라고 허풍을 치며 호객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일본을 조금 아는 한국 사람들은 여기가 과연 일본인가하며 놀라곤 한다.

평상시 일본인의 조용하고 흥정할 줄 모르는 얌전한 판매 행위만 보다가 아메요코 시장에서의 난장판 같은 기분 좋은 무질서를 보면 모두들 놀란다. 놀라는 것은 한국인뿐만이 아니다. 일본인들도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

며 구경을 한다.

아메요코 시장에서 생선이나 건어물 등의 물가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켓의 35% 정도인 듯하다. 물건을 보면 어떤 것은 오히려 한국보다도 더 싼 것도 많아 놀란다.

아메요코시장은 한국인들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 시장이다. 패전후 많은 한국인들이 식량을 구하거나 물건을 팔기 위해 아메요코로 몰려 들어 일본인들 속에서 작은 한국인들의 상권을 일구어 낸 의미있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아메요코 주변에는 한국인들의 금 세공 기술자들이 7-800 여명 살고 있기도 하다. 일본의 버블 경기 때에는 수천명의 세공업자들이 자리를 잡고 일본의 금 세공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아메요코는 전후의 민족차별 속에서 한국인들의 악착같은 삶의 터전이었고, 최근 20년전부터는 뉴 커머들의 삶의 터전이기도한 시장이다.

다. 방문사진



아메요코 재래시장 입구



아메요코 재래시장 방문



아메요코 재래시장 방문



아메요코 재래시장 방문

라. 견문소감 및 접목사례

❖ 김중환 의회운영위원장

- 시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음. 많은 시장들이 역사속으로 그 자취를 감추고 있어 안타까우며, 현대 재래시장의 역할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소비자들은 대형쇼핑센터에서 편안하게 물건 사기를 즐기고 있음. 경제대국 일본에서도 예외없이 동경에서 마지막 남은 재래시장을 방문해보니, 일본 자체의 상품을 팔기보다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물건들을 들여와 판매하고 있어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또한, 길하나 건너 (우에노)공원이 있고 큰길로 나오면 금융기관, 버스승강장 등 교통수단이 연결되어 있어 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였으며, 시장 골목마다 상품별로 질서있게 배치되어 있어 시장을 처음 찾는 소비자들도 쉽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해놓았음.
- 우리군의 경우도 상품의 다양화와 상인들의 전문화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집행부와 합심하여 하동읍 활력프로젝트사업에 병합하여 시장조성시 상품별로 특수성 있게 골목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이 함께 하는 시장으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면 하동읍 시장의 관광 상품화로 옛날의 전통시장의 모습을 담으면서 새로움을 추가하여 발전해 갈 수 있을 않을까하여 접목하고자 함.

2. 동경 신도청 전망대

가. 방문일시 : 2016. 9. 25(일)

나. 시설개요

○ 소재지 :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2-8-1 도쿄도청 제1본청사

○ 설립일 : 1991년 (건축기간 1988년 ~ 1991년)

○ 시설현황

- 도쿄 도청사 또는 줄여서 도쿄 도청은 도쿄 23구와 도쿄 도의 도시, 정, 촌 전체를 관할하는 도쿄 도 정부의 본부이다. 지방정부 건물 치고는 보기 드물게 지상 48층, 243m(제1본청사)의 초고층 마천루이다.
- 컴퓨터 칩을 닮은 이 건물은 건축가 단게 겐조에 의해 설계되었고, 많은 상징적인 특징들이 있다.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은 일본 전통 건축에서 가지고 왔다. 또 건축물의 가운데 부분을 비워 위압감을 줄이려 한 것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고딕 대성당을 떠올리는 형태가 되었다. 설계 당시부터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염두에 두어온 건물이다. 하지만 특유의 디자인으로 인해 방수와 청소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외장마감은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화강암으로 되어있다.
- 도쿄도청을 짓는데 약 1,569억 엔이 소요되었으며 연간 유지비용은 40억엔이다. 또한 건물 수리로 1,000억엔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시적인 비용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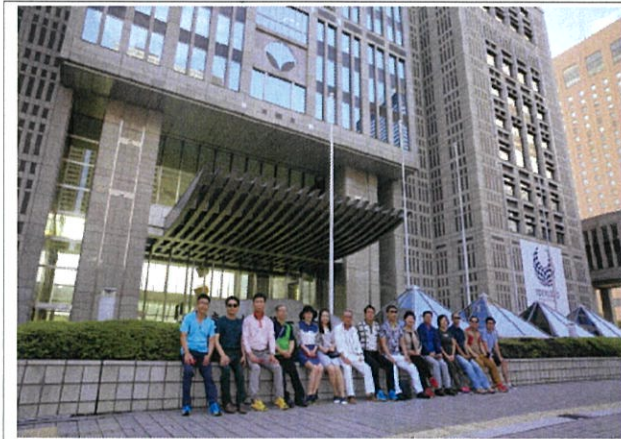
현재 이 건물의 전력의 5%는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생긴 전력으로 이용하고 있다.

- 건물은 세 개의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도시 블록을 차지한다.

세 개 중에서 가장 높고 두드러진 것이 도쿄 도청 제1 본청사로 48층의 탑이 33층에서 두 부분으로 쪼개진다. 건물은 또한 지하로 3층이 있다. 1991년부터 2006년에 미드타운 타워가 완공될 때까지 도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단지 내의 다른 두 개의 건물은 8층(지하 1층 포함)의 도쿄 도의회 건물과 37층(지하 3층 포함)의 도쿄 도청 제2 본청사이며, 제2 본청사는 근처의 신주쿠 파크타워와 닮은 모습이 보인다.

다. 방문사진



도쿄도청 전망대 방문



도쿄도청 전망대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쿄 시내



도쿄도청

라. 전문소감 및 접목사례

❖ 김한기 과장(건설교통과)

- 신도청사를 지을 당시 초호화 청사로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서 공공시설물을 개방하여 관광시설로 활용한 점은 좋은 사례임. 공공기관 건물은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고, 주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분위기를 내는데 청사를 관광자원화 하여 주말에도 관광객과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점을 접목하여, 우리군의 경우도 청사 및 공공시설물 건립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와 정원, 카페 등을 조성,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동경 국립 장애인 재활치료 센터

가. 방문일시 : 2016. 9. 26(월)

나. 기관개요

○ 시설명 :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소재지 : 4-1 Namiki, Tokorozawa, Saitama 359-8555 Japan

○ 설립일 : 1979년 7월

○ 시설현황 : 부지면적 225,180㎡, 건물면적 101,467㎡

○ 사업목적 및 기능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에서 유일하게 전국의 모든 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시설로 장애인의 사회 복귀, 재활, 직업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 장애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을 도움으로써 신체·지적 장애 등을 가진 사람의 인격 보호가 주목적임
- 재활치료의 제공 :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단·치료와 의학적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
- 장애복지 서비스의 제공 : 자립지원국은 장애자 지원시설로 장애를 가진 분들을 이해하고 개개인에게 응대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 지원기술, 지원기기, 지원시스템의 연구개발 : 연구소에서는 장애를 가진 분들의 자립과 사회참여·생활의 질을 향상 촉진시키기 위해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기를 연구 및 개발
- 재활치료에 관한 전문 인재육성 : 학원에서는 장애관련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직의 양성과 장애를 가진 분들의 재활치료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직 연수

○ 기관설명

- 장애인을 위한 국립 재활 센터 (NRCD)는 자신의 독립과 사회 참여에 대한 일본의 장애인 (PWDs)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NRCD는 직업 훈련에 대한 치료에서 재활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생활 기능을 유지할 위한 고급 종합 건강, 의료 및 복지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NRCD는 또한 연구 및 재활용 기술 및 보조 제품의 개발뿐만 아니라 교육 및 재활 전문가 교육의 핵심 기관으로 운영됩니다.

과학적 증거 기반의 의료 및 복지 프로그램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NRCD는 특정 장애에 관한 임상 자료로 평가 및 정보의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작업하고 재활의 다음 세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NRCD 최신 과학 자원과 PWDs의 기능적 한계를 절감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사용하여 R & D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리ハビリテーション에 관한 국제협력 : WHO사업으로의 협력과 해외의 관계 기업과의 연계, 교류를 행함과 동시에 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자의 자립에 필요한 직업지도, 직업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일본에 있어 직업 리ハビリテーション의 선국적 실천기관입니다. 훈련생 개개인의 커리큘럼에 따라 직업 훈련을 행함과 동시에 훈련생이 희망하는 기업으로의 취직과 직장에서의 원활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노동청과 연계지원을 행합니다.

다. 방문사진



국립 장애인 재활치료 센터



센터 안내동영상 시청 사진



센터 안내동영상 시청 사진



시설견학 사진



시설견학 사진



시설견학 사진



시설견학 사진



시설견학 사진

라. 질의 · 응답

질의자	질의내용	답 변
강희순 의원	· 시설 입소 비용은 유료인가? 무료인가?	· 일본 건강보험으로 충당하며 개인부담 비율은 10%정도임
박다영 주무관	· 입소하면 언제까지 머무를 수 있는지?	· 최장 2년간 지낼 수 있으며, 개인별 사회복지사가 배정됨
하인호 의원	· 입소하려는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은지?	· 개별 상담후 비용 등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되며, 2달의 여유를 두고 입소가 가능함
강상례 의원	· 재활훈련 후 사회진출 비율은 어느정도인가?	· 50% 정도이며 법적으로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있음(2% 의무채용)
김진태 의원	· 일본에서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회사가 있는가?	· 있지만 극히 드물고, 주로 도 시락이나 베이커리 회사임
강상례 의원	· 장애 · 비장애인이 같이 교육하는 학교가 있는지?	· 있음. 그리고 일본에서는 유치원과 양로원을 인접하게 위치하여 교류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음
김선규 의원	· 사회복지기를 위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지?	· 개인별 맞춤으로 심리훈련도 병행하고 있음
정의근 부의장	· 시설을 둘러보니 대부분 문에 턱이 없는데 홍수 시 물이 들면 어찌 대처하는지?	· 장애인을 위한 barrier free(배리어 프리) 시설이며 아주 미묘한 경사가 있어서 홍수시 배수 문제는 없음
손영길 의장	· 장애인을 위한 최신기기들을 전시해놓은 제품들은 여기서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지?	· 판매는 하지않으며, 각 지역마다 매장이 있는데 렌탈방식임
김봉학 의원	· 제품 렌탈 비용은 개인이 모두 지불 하는지?	· 개인부담률 10%이며 나머지는 국가부담임
김종환 의원	· 기기들을 렌탈하면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쓰는 것에 거부감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은지?	· 사망 시 국가에서 일괄 회수 관리하여 그런 문제는 없음
손영길 의장	· 시설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얼마 정도인가?	· 1년에 500억 정도임.

마. 견문소감 및 접목사례

❖ 정의근 부의장

- 시설을 둘러보니 일본 특유의 꼼꼼함이 묻어나는 것 같음. 노인대국인 일본에서 장애인 복지시설도 역시나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 느낌을 받았음.
특히, 장애인 직업 교육시 세탁업종으로 취업 나가고자 할 경우 시설내 직원들의 유니폼을 교육생이 직접 다리고 손질하는 시스템은 시설내 운영비 절약도 하며 실전교육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음.
- 하동군에서도 노인·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건립 추진중인데 모든 시설과 장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장애인과 노인의 관점에서 설치 및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강희순 의원(기획행정위원장)

- 입소자들의 중증도와 심리상태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달리하여 교육하고 있는 것이 인상 깊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소수임에도 한사람 한사람이 장애를 극복하여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개발까지 연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임 .
- 시설을 둘러보다보니 새소리가 나는 곳이 있었는데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듣고, 이 시설이 장애인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느껴졌음.
우리군에서도 읍면마다 복지회관이 많이 있는데 노인분들 이용시 최대한 배려심 있게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

4. 동경도 제3건설 방수로 센터 [칸다 강·환상7호선 지하 조절지]

가. 방문일시 : 2016. 9. 26(월)

나. 기관개요

- 시설명 : 칸다강·환상 7호선 지하 조절지
- 소재지 : Nakano 4-8-1, Nakano-ku, Tokyo 164-0001
- 설립일 : 1997년 착공 ~ 2005년 완성
- 설치목적 :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칸다가와의 중류지역에 '환상형

지하 하천'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이를 우수 조절지로 이용하는 시설

○ 시설현황

- 환상 7호선의 도로 아래로 연장 4.5 km, 내경 12.5 m의 터널
- 칸다가와와 선복사천의 홍수 약 540,000 m³을 저장하는 시설
- 약 시간당 50 mm 정도의 우량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
- 지반은 실트, 모래, 자갈등으로 구성
- 수직갱의 폭은 30m, 지하 50m 깊이에 설치

다. 방문사진

	
칸다 강·환상7호선 지하 조절지 관리동	시설안내 동영상 시청
	
저류시설 작동원리 모형 시연	지하저류지
	
지하저류지(1)	지하저류지(2)

라. 질의·응답

질의자	질의내용	답 변
김봉학 의원	· 이런 시설을 만든 동기가 무엇인지?	· 1993. 8월 집중호우로 가옥침수 3,117호 발생하여 저류지의 필요성 인식하여 건설하게 됨
손영길 의장	· 지하로 물이 유입될 시 물이 왜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는지?	· 물이 바로 떨어질 시 수압으로 인해 주변 마을에 소음·진동이 발생하여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롭샤프트 기술을 활용
강상례 의원	· 드롭샤프트 기술이라는게 정확하게 무엇인가?	· 나선형 구조를 통해 물을 천천히 흘려보내어 물흐름으로 인한 시설 파손 방지 및 안정적 흐름을 구현하는 것임
하인호 의원	· 저장시설에 저장된 물은 어찌하는지?	· 화재발생 시 저장고의 물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극히 드물
김중환 의원	·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못하는가?	· 급격한 도시화로 주변의 대부분이 시가지라 농업용수로의 활용도는 없음
강희순 의원	· 연간 몇 회 정도 물을 저장하는 일이 발생하나?	· 연간 2회 정도이며, 올해는 8월에 1번 저장한 적이 있음
김한기 과장	· 저장 가능한 물의 양은 얼마 정도인가?	· 54만ton 저장 가능함
정의근 부의장	·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었는지?	· 총사업비는 시공비 및 보상비를 포함하여 1,010억엔(약 1조 4천억원)
김봉학 의원	· 싱가폴 같은 경우 이런 시설을 평소에는 도로 등으로 활용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지?	· 이 곳의 경우 집중호우시 30분만에라도 범람이 가능하기에 차량통제 등의 시간소요로 도로로는 활용이 불가능함
김진태 의원	· 지하 50m까지 판 이유는 무엇인지?	· 동경지하철 노선이 많아서 다른곳의 영향이 없게 하기위해 깊이 판
하인호 의원	· 동경에 이런 저류지가 몇 곳이나 있는지?	· 총3곳(구로메바시 조절지, 후루카와 지하조절지, 환상7호선 지하조절지)이 있으며, 신규 조절지를 지속 확충하는 중임
김선규 의원	· 강물 유입시 오수와 섞이지 않는지?	· 쓰레기가 섞여 유입되기도 하지만 거르면서 오기 때문에 악취가 심하지 않으며, 1년에 2번 정도 청소함
김중환 의원	· 조절지 시스템 필요시 수동으로 작동한다고 했는데 실제 조작시 위험요소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않은지?	· 6대의 CCTV로 실시간 강물수위를 체크하며 이중장치로 오작동을 방지하고, 반드시 2인 1조 근무 및 조작 원칙임

마. 전문소감 및 접목사례

◆ 김진태 의원

- 취수시설을 하기전 1993년 침수가옥이 3117호였던 것이 2004년 동일한 강우량에서는 46호로 줄어든 것은 이 시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현재 하동읍의 경우 집중호우시 저지대인 하동읍 시장쪽으로 침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대규모의 저류지는 현실적으로 하동에 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추진중인 ‘읍내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시 이런 시설을 소규모로 설계하거나 배수 시설을 재정비하여 반영해 보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산업건설위원장)

-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자연지에서 주거지(시가지)로의 변화는 자연재해에 취약한 도시가 될 수 밖에 없었는데, 인공적인 시설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싶기도 함. 하동은 아직 도시화가 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가 관광지인 곳이므로 좀더 멀리 내다보고 자연적인 흐름에도 맞게끔 시설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5. 동경 제23구 쓰레기 소각처리장

가. 방문일시 : 2016. 9. 27(화)

나. 기관개요

○ 시설명 : 동경 오오타 쓰레기 소각 처리장

○ 소재지 : 오오타구 게이힌지마 3-6-1

○ 설립일 : 2010년 착공 ~ 2014년 준공

○ 시설현황 : 부지면적 92,000m²

○ 시설 설치목적과 역할

- 도쿄 23구는 주민에게 친숙한 서비스인 청소사업이 2004년 4월 1일에 23구로 이관됨에 따라 이때 쓰레기의 수거, 운반은 각 구에서 각각 실시토록 하였으며, 쓰레기의 중간처리(소각 및 파쇄 등)는 처리시설이 없는 구

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23구가 공동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 “청소일부 사무조합”은 이 공동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23구의 총의에 따라 설치된 특별지방공공단체입니다.

매립처분은 각 구 및 청소일부 사무조합이 매립처분장을 관리·운영하여 도쿄도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쓰레기의 수거, 운반 및 자원 수거는 각 구의 청소사무소가 담당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해 쓰레기 종류(가연성, 불연성, 대형)별로 운반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연성쓰레기는 수거 현장에서 수거 차량(소형 프레스 차량 등)에 옮겨진 후 직접 청소공장에 반입됩니다.

불연성쓰레기는 중방 불연성쓰레기 처리센터 또는 게이힌지마 불연성쓰레기 처리센터로 반입되며, 두 시설은 임해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부구는 육상 중계소 및 선박 중계소를 설치해 컨테이너 차량이나 선박에 옮겨 싣고 중계 수송합니다. 중계수송에는 수송효율 향상, 교통 체증완화, 배기가스 감축으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대형쓰레기는 대형쓰레기 파쇄처리시설로 반입됩니다. 중계소가 있는 구는 소형 수거 차량에서 대형 차량에 옮겨 싣고 중계수송합니다.

- 가연성쓰레기는 20곳(2015년 12월 기준)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소각처리되며, 쓰레기는 소각을 통해 박테리아나 해충, 악취 발생 등을 방지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각 후에는 용적이 약 1/20로 줄어들고, 소각 처리된 소각재의 일부를 시멘트 원료로 자원화하거나 용융해 슬래그화함으로써 매립처분량을 더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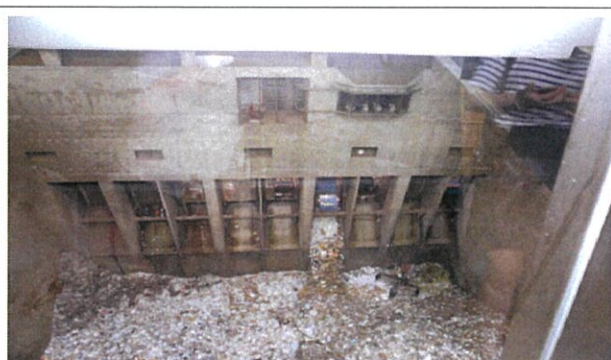
시멘트 원료화란 소각장에서 발생한 소각재를 민간 시멘트공장까지 운반해 시멘트 원료로서 이용하는 것이며, 시멘트의 원료는 석회석, 점토, 규석, 철원료, 석고로 분류되는데 소각재는 이 중 점토의 대체 원료로서 사용되며,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제조됩니다.

소각장에서는 배출된 배기가스, 배수 속의 유해물질은 발생 억제 및 삭감을 통해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일 수 있으며,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열 공급 및 발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방문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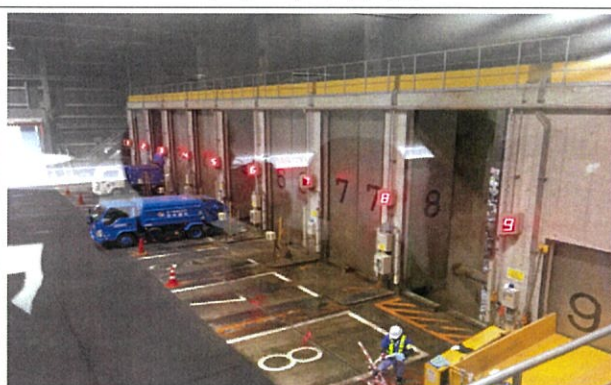
오오타 쓰레기 소각 처리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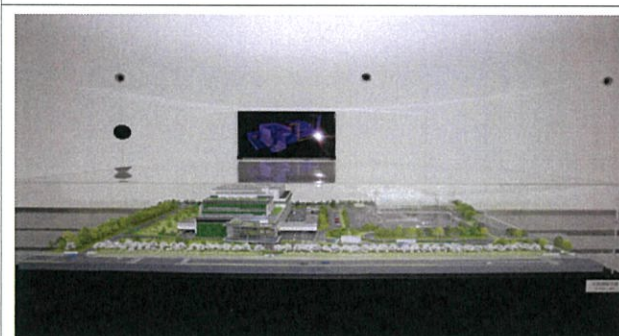
수거쓰레기 집하장



중앙통제실 사진



쓰레기하차 플랫폼



시설 모형도



시설안내 동영상시청 모습



소각재 건축자재 재활용



소각재 보도블럭 재활용

라. 질의 · 응답

질의자	질의내용	답 변
김선규 의원	· 쓰레기 소각장임에도 냄새가 별로 나지않는 것 같은데 지은지 얼마되지 않아 그런것인가?	· 쓰레기 출입구에는 에어커튼 장비가 설치되어 악취를 차단하고 있음
김종환 의원	· 총 공사비용은 얼마였는지?	· 한화 2,000억 정도임
김진태 의원	· 시설에 비해 공사비용이 적은 듯한데 이유가 무엇인지?	· 오오타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매립지에 지어져 보상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지하층까지만 있어 시설투자 비용이 적게 들
강상례 의원	·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조합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음
김봉학 의원	· 중앙제어실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총70명이 근무하며 6인 1조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1명이 제어실 컨트롤을 하고 나머지 5명이 현장 점검을 함
강희순 의원	· 쓰레기 병커의 쓰레기를 큰 집게가 뒤섞는 이유는 무엇인지?	· 부엌에서 나오는 찌꺼기, 종이류, 섬유, 나무나 풀 등 여러 가지 재질 및 크기의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데 아래 쪽에 있는 쓰레기는 위에 쌓여진 쓰레기의 무게로 태우려면 어렵기에 쓰레기 질을 균일화하여 소각로에 투입하기 위한 작업임
손영길 의장	· 소각시설의 경우 혐오시설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주민의 반발은 없는지?	· 매립지에 지어진 건물이라 주변에 주거지가 거의 없어 주민들과 충돌은 없음. 현재 23구에 있는 소각시설의 경우 신규 설치는 없고 기존 시설 리모델링이 대부분이라 주민 반발은 없음
김선규 의원	· 예산은 어느정도 편성되어 있는가?	· 20개 소각시설에만 소요되는 예산은 7200억 정도임
정의근 부의장	·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전기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생산된 전력은 어떻게 하는지?	· 우선 소각장의 조명, 공기조절, 쓰레기 처리 설비를 작동하는데 쓰며 남은 전력은 전기사업자에게 매각함
손영길 의장	· 민간에 매각한다고 했는데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	· 열 판매 수입액은 1,000억 정도임
하인호 의원	· 소각 시 배기가스 등을 내뿜는데 주민들을 위한 유해물질 배출 측정기는 따로 있는지?	· 굴뚝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주거지가 없어 시설주변으로는 없지만 신주쿠 등 시가지에는 설치되어 있음

마. 전문소감 및 접목사례

◆ 손영길 의장

-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대부분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로 하동에도 현재 쓰레기처리장을 신규로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오타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참고하여 건립 시 벤치마킹하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음. 하루에 반입 처리될 수 있는 쓰레기 양이 600톤 정도임에도 시설내에 악취가 나지 않는 것이 인상적이며, 이런 선진 시설을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믿음과 신뢰를 준다면 혐오시설이 아닌 상생시설로 인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설립 추진중인 쓰레기 소각장도 악취와 먼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 김선규 의원

- 쓰레기를 단순히 소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되고 남은 재와 열을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익사업까지 한다니 기술적으로 많은 연구개발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초기 투자가 선행 되었다는 것이 부럽게 느껴짐.
- 그리고 시설을 둘러보니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사용한 공구들을 깔끔하게 씻고 닦아서 정리·정돈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으며 하동군도 쓰레기 소각시설의 열을 활용하는 발전시설 등을 검토하도록 건의하겠음.

6. 삿포르 스포츠센터(돔 시설)

가. 방문일시 : 2016. 9. 28(수)

나. 기관개요

- 삿포르 돔은 축구와 야구 2개의 프로 팀의 본거지가 되고 있고, 세계에서 몇 안되는 스타디움이다. 일본 프로야구팀 홋카이도 닛폰햄 파이터즈(北海道 日本ハム ファイターズ)와 J리그 콘사도레 삿포르(コンサドーレ札幌)의 홈 구장이다.
- 대형 돔 경기장은 야구장, 축구장, 레이싱 경기장 등으로 쓰이고, 경기뿐만 아니라 콘서트장 등 대형 행사장으로도 사용되며, 경기가 없는 날에는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돔투어와 삿포르 시가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53m 높이의 전망대를 오픈하고 있다. 또 돔의 역사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전시 시설도 갖추고 있는데 삿포르 돔에서 공연을 했던 해외 유명가수들의 사인이 들어간 소지품들을 전시해두고 있어 삿포르 돔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다.

- 샷포로 돔은 세계 최초로 경기장에 공기부상 방식을 도입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거대한 천연잔디 구장이 공기압에 의해 7.5cm가량 부상하고 34개 바퀴를 이용해 1분당 4m씩 이동하는 식이다. 이처럼 특이한 시스템 덕에 축구와 야구 경기가 모두 가능하다. 축구경기 시 수용인원은 41,983명이고 야구경기 시에는 42,270명 수용이 가능하다.

다. 방문사진

	
구장내 기념촬영	홍보 동영상 시청
	
야구 경기장일 때 모습	선수 대기석
	
샷포로 돔 방문	선수대기실 방문

라. 질의·응답

질의자	질의내용	답 변
김진태 의원	· 건설비용은 얼마정도 었는지?	· 건설비용은 약4,500억원, 토지 가격은 대략 1,200억원 정도임
김봉학 의원	· 경기장의 잔디는 천연잔디인지?	· 축구장은 자연잔디, 야구장은 인공잔디임. 인공잔디는 220매가 깔려있음.
하인호 의원	· 자연잔디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 첨단 이동 시스템으로 잔디밭을 밖으로 이동시켜 별을 쬔어 키울 수 있음
박다영 주무관	· 야구장에서 축구장으로 교체시 전기세는 얼마나 드는지?	· 이동에 드는 전기세는 20만원 가량이지만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교체시 2천만원이 소요 됨
박다영 주무관	· 야구장에서 축구장으로 교체시 작업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 10시간 정도임

마. 전문소감 및 시사점

❖ 김봉학 의원

- 한국에도 돔 구장이 2015년 11월에 서울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
돔 구장의 최고 강점이 사계절 내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인데 샛포로 돔 시설은 정말 웅장하고 최고의 설비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음.
- 우리군에서 현재 스포츠파크 조성중에 있는데 건립 예산은 많은 차이가 나지만 구장의 운영·관리면에서 벤치마킹하여 많은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을 다양화하여 젊은층 뿐만 아니라 노령층까지 여러세대 군민들이 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박다영 주무관 (체육시설사업소)

- 샛포로 돔 건설비용이 우리군 예산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차이가 나지만 하동 스포츠파크 사업 시 시설 운영 측면은 접목할 사항들이 있음.
샛포로 돔의 경우 친인간, 친자연, 친환경을 표방하며 스포츠시설뿐만 아니라 보고, 먹고, 즐길거리를 구비해 놓은 종합생활 체육시설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동군도 스포츠파크 시설내 키즈 파크, 메모리얼 코너, 여러 스포츠종목을 형상화한 공원 등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체육시설 기능 뿐만아니라 관광객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7. 오타루 운하 시설 및 매립지 현황

가. 방문일시 : 2016. 9. 29(목)

나. 시설개요

○ 소재지 : Minatomachi, Otaru, Hokkaido Japan

○ 시설현황

- 오타루 운하는 홋카이도 오타루(北海道小樽)에 있는 길이 1,140m의 운하이다.

오타루항은 홋카이도 개척의 현관문으로서 발전해 왔습니다. 당시는, 큰 배를 바다에 묵게 하고 거룻배(대선)를 사용해 짐싣기 했지만, 취급하는 물량이 많아져 거룻배가 직접 창고의 근처까지 들어가 갈 수 있는 수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타루 운하」입니다.

오타루 운하는, 타이쇼 12년(1923년)에 완성되었는데 내륙을 판 운하가 아니고, 해안의 난바다를 매립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선이 아니고 완만하게 만곡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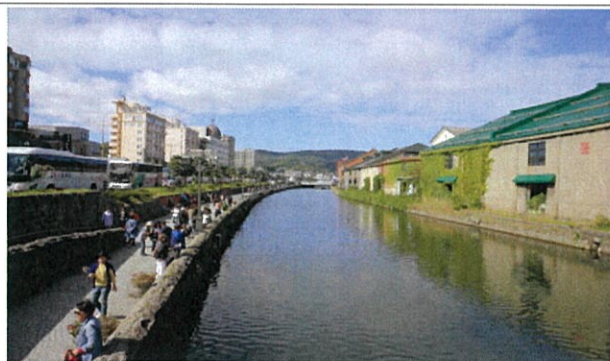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전후가 되면서 항구의 부두 안벽의 정비에 의해 그 사명은 마지막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쇼와 61년(1986년), 운하는 수십년에 이른 매립을 둘러싼 논쟁의 끝에 일부를 매립해 폭의 반이 도로가 되어, 산책로나 가스등을 정비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산책로에는 63개의 가스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운하 가의 석조 창고는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남겨져 있어 레스토랑 등에 재이용되고 있습니다.

황혼시에는, 가스 등불이 켜지는 것과 동시에 석조 창고들이 불을 밝혀 낮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여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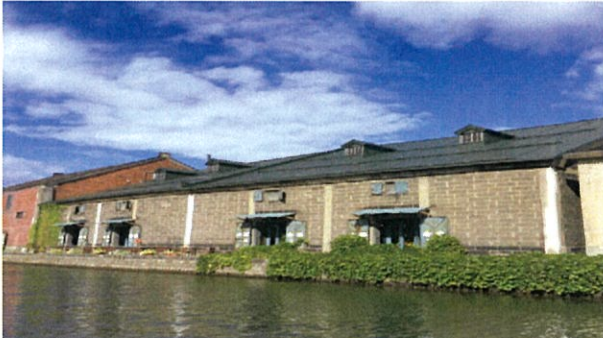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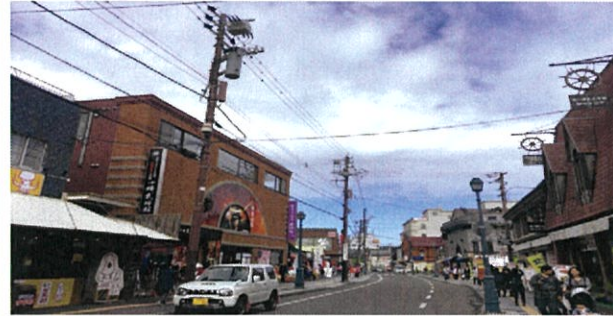
다. 방문사진



오타루 운하의 모습



창고를 상점으로 활용

	
<p>창고를 음식점으로 활용</p>	<p>운하 안내도</p>
	
<p>오타루 운하 견학</p>	<p>외국 체인점이 없는 오타루거리</p>

라. 전문소감 및 접목사례

❖ 강상례 의원

- 오타루는 계획도시라고 알고 있는데 둘러보니 예전 건축물들을 아주 잘 보존하고 있어 오타루 자체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어져 멋진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듯 함. 오타루 운하가 폐쇄될 때 신규로 건물을 지어 개발을 했더라면 다른 어느 도시와 다름없어 특색이 없었을 것을 기존의 창고들을 허물지 않고 식당과 상점으로 활용한 점은 높이 살만함. 그리고 오타루에서 맛 볼 수 있는 디저트 가게들이 즐비한 거리가 있는데 어느 곳을 보아도 외국체인점이 없음에 놀라웠음. 상가번영회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오타루에서만 맛볼 수 있는 디저트를 개발하여 관광지와 연계하여 판매한 것은 문화·관광을 강조하는 우리군에서도 접목해 볼만 하다고 생각됨.

❖ 김한기 과장(건설교통과)

- 오타루 운하를 둘러보니 오래된 낡은 건물들을 이용하여 재도시화 하여 옛날의 분위기가 나면서 관광지로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매력을 가진 곳이라 생각됨. 서울 피맛골의 경우 재개발 사업으로 종로의 명소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일본은 옛것을 더 중시하고 보존하는 모습이 관광지로 각광받는 요인이라고 생각됨. 하동군도 100년이 지나도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과 관광상품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보존하도록 연구하겠음.

8. 미치노에키 휴게소 및 농수산물 직거래장


가. 방문일시 : 2016. 9. 29(목)

나. 시설개요

○ 시설현황

일본의 휴게소는 미치노에키(일본어: 道の駅 みちのえき)라고 불리며 여러 도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국도에도 휴게소가 널리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4년 4월 4일에 16개가 신설되어 일본에 미치노에키는 1,030개가 있으며, 홋카이도에만 114개가 있다. 일반 고속도로 휴게소와 마찬가지로 주차, 화장실, 음식 등을 제공한다. 이곳은 여행자 휴게소이지만 특산물 판매소와 관광정보 안내소 등 여행자 편의시설이 꼭 병설되어 있다. 지역마다 특색있게 온천에 몸을 담글 수 있는 미치노에키 등 개성 있는 미치노에키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보를 소개하여 여행자들에게 환영 받고 있다.

다. 방문사진

	
<p>미치노에키 전경</p>	<p>휴게소내 전기자동차 충전소</p>
	
<p>오토바이 주차장</p>	<p>휴게소 화장실 배치도</p>

라. 견문소감 및 접목사례

❖ 하인호 의원

- 일본은 국도 휴게소가 발달해 있어 지역 농·특산물을 직접 공급하기 용이하게 되어있음. 휴게소 인근에 사는 거주자들도 쉽게 장보러 올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 지역 농특산물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우리나라도 현재 로컬푸드 사업으로 지역내 농특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로컬푸드와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쉬어갈 공간을 제공하면서 지역내 농산물을 관광객에게 판매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구매할 수 있는 있도록 주요 거점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

1. 총평 및 시사점

- 이번 해외연수를 준비하면서 우리지역의 현안 주요사업과 비교하여 2017년 군정시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과 함께 재래시장, 장애인복지시설, 방수로 센터, 쓰레기 소각장 등을 방문하였는데 우리군의 현 상황과 비교·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점들을 둘러보았음.

- 경제규모 세계3위인 일본을 방문하여 6박7일 여정을 보내는 동안 느낀 점은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실생활면은 소박하고 질서 정연한 느낌을 받았음.

사회 전반에 걸쳐 깔려있는 질서 의식과 준법 정신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느꼈음. 일본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사회 곳곳에 녹아 들어 있으며, ‘나도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테니 너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인식과 사람만 모이면 무리짓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람이 모여도 공공장소에서는 공간을 비워주고, 벽에 밀착하는 모습이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음.

또한, 이러한 일본의 모습을 닮은 거리는 쓰레기 한 점 찾아볼 수 없어 ‘역시 일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 그리고 연수단 방문기간인 26일 오키나와에서 5.7, 홋카이도에서 규모 4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사이렌을 통해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지진이 있음을 알렸으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는 국민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았고, 건물과 교량들도 내진설계와 사후지도가 잘 되어 있어 이러한 정부에 대한 신뢰로 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믿고 따른다는 느낌이 들었음.
-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본 연수와 가장 크게 와닿았고,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 것은 첫 번째로 작은 것, 사소한 것, 기본에 충실한 모습이었음.

별거 아니라고 대충대충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쉬운 기본적인 것들을 일본은 중요시하였기에 단계적으로 탄탄하게 성장하여 경제대국을 이루었지 않나 생각됨.
두 번째로 옛것을 버리지 않고 활용하여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낸 점임.
대부분의 관광지나 시설들이 50년 이상 된 건물과 먹거리들이었는데 자연 그대로를 살리면서 현대인들이 사용하기 유익한 시설로 조화롭게 변형시킨 것은 배울 점이라고 생각됨.

2. 하동에 접목하고픈 기타 사례



일본 고속도로휴게소 다기능화장실



목지시설내 다기능화장실 내부

- 일반적으로 장애인화장실로만 사용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일본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화장실이 다기능화장실로 지칭하여 약자들이 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음. 장애인화장실로 국한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적어 관리소홀로 이어지기 쉬워 방치되기 쉬운데 다른 사람들도 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효율적으로 보였고, 화장실의 사이즈도 휠체어가 회전할 공간까지 계산하여 공간확보 해놓은 점은 우리군 장애인화장실 설치 시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p>임시저류지로 활용하는 아파트 침터</p>	<p>임시저류지로 활용하는 아파트 침터</p>



- 칸다강·환상7호선 지하조절지 같은 시설이 아니더라도 위 사진처럼 경사진 아파트의 1층을 활용하여 집중호우시 임시 물저장소로 활용할 시설을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생각됨.

	
<p>세면대 바로옆에 위치한 핸드건조기</p>	<p>비데사용법 외국어 안내판</p>

- 관광지로 여행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장 많이 들르는 곳이 화장실임.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 청결함은 기본으로 보게 되고 또한, 세심하게 이용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일본의 경우 손을 씻은 후 세면대 바로 옆에 건조기를 두어 이용자가 손에 있는 물을 바닥에 흘리지 않고 말릴 수 있게 설치해 두었고, 비데 사용법을 외국인까지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배려하여 안내해 놓았음.

	
<p>신궁 내 삼나무조성 현장</p>	<p>산책길 바닥사진</p>

- 신궁내 편백나무 숲을 방문하였을 때 산책로 조성시 남은 나무파편으로 바닥에 깔아놓아 쿠션감 있어 걷기 편하고, 우천시에도 물에 쓸려가지 않아 재정비필요성이 없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우리군 편백나무 숲 및 각종 공원 조성시 남은 나무조각을 활용하여 산책로에 활용하였으면 함.

	
<p>삿포로 한정판 맥주</p>	<p>일본대표 먹거리 상품(로이스 초콜렛)</p>

- 관광의 주목적은 볼거리와 먹을거리임. 삿포로의 경우 삿포로 맥주가 대표적인데 삿포로를 방문하여야만 맛볼 수 있는 한정판 맥주를 현지에서만 판매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 제주도의 돌하르방을 전국 어디에서나 팔고 있어 희소성을 떨어뜨리고, 그 지역을 다녀왔다는 자부심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지만 일본은 다녀온 사람만이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상품을 아주 잘 개발해 놓았음. 우리군의 경우도 only 하동에만 있는 먹거리와 볼거리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인하는 전략을 펼쳤으면 함.



시대촌의 나무로 된 배수로 덮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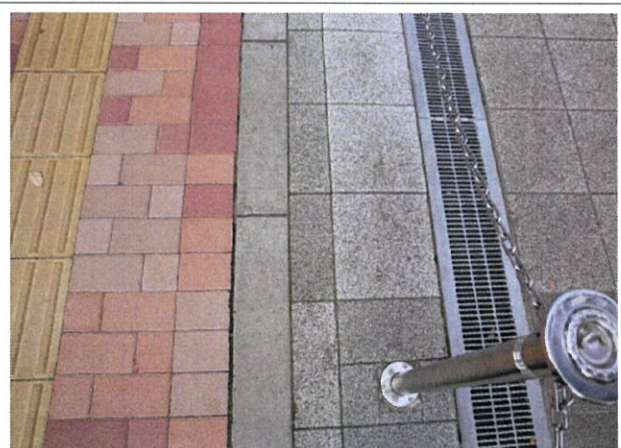


시대촌의 나무로 된 배수로 덮개

- 노보리벳츠 시대촌 견학 시 눈에 띄는 것은 예전 모습을 길으로만 재현해 놓은 것이 아니라 배수로 하나하나까지 그 시대 모습을 반영해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음. 우리도 최참판댁이나 삼성궁 등의 시설을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까지 그 시대를 반영한다면 관광객들에게 좀더 의미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음.



일본의 가로수 모습



턱없는 배수로

- 노인대국인 일본의 선진화된 모습을 길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었음. 특히, 턱없는 배수로는 휠체어가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가로수 시설 공간을 최소화하여 보행자의 통행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였음.

	
<p>가로수 보호대겸 벤치</p>	<p>일본 무인주차기</p>

○ 길거리에 흔하게 있는 가로수 보호대를 벤치와 겸용으로 활용하여 보행자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가로수 보호대 역할도 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일본의 경우 도로변 불법주차가 거의 없었음. 그 이유가 건물을 신축할 시 주차공간이 없을 경우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거나 인도를 침범하여 주차해 놓은 차가 없어, 도시전체가 깔끔하고 골목길의 차량 소통도 원활하였음. 또한, 일본은 보편화된 무인주차 시스템을 통해 공용주차장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었음.